



(우10948)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210-28

※ 성시시 갑안내※

평일	월	06:00	전진성당	주일	토요일	17:00	전진성당		
	화/목/토	10:00			10:30				
	수/금	19:00			14:30	JSA성당			
고해성사		성시간		예비자교리					
매 미사 15분 전		매월 첫주일 11시 30분		매주일 오전 09시 30분					

2025년 대체 전진성당 시록기획
신성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간진성사의 해

- ① 성령특은의 부여를 위한 성령송가 바치기
- ② 성령열매의 맛음을 위한 전례참여 활성화
- ③ 세례성사의 완성을 위한 교리교육 지속화
- ④ 예언자직에 참여를 위한 간부단체 활성화
- ⑤ 사제·왕직에 참여를 위한 병사단체 활성화

2025년 교무금 인내(월급제)

일령	3,000	상병	4,000	병장	5,000
하사	10,000	중사	25,000	상사	50,000
원사	70,000	준위	70,000	소위	20,000
중위	25,000	대위	55,000	소령	75,000
중령	100,000	대령	170,000	준장	200,000

농협 171337 - 51 - 001276
(천주교군종교구유지재단 진진성당)

2025년 시록회비 인내(월급제)

하사, 중사 위관장교	10,000	소령, 준위 상사, 원사	15,000
중령	20,000	대령, 준장	30,000

농협 302-1934-6696-11 (송종원)

2025년 성모회비 인내(월급제)

전회원 20,000원

농협 302-1934-6783-11 (신자심)

임명직 군종병 모집(성시)

시설봉사	환경 미화	반주봉사	건반, 기타
전례봉사	해설, 복사	JSA성당	주일 오후

문의 - 사무장, 회사님

오늘의 성기

일당 317

봉헌 145

성제 234

피리 199

주임신부	김 진 오 (요셉)
시목회장	안 영 만 (대전안드레이)
전회번호	031-947-0174(사무실) 010-2969-0558(주임신부)
블로그주소	http://cafe.daum.net/junjinca1

공지사항

-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 바치기
일시 - 매일 저녁 9시
장소 - 각자 삶의 자리
- ▣ 평일미사 안내
일시 - 28일(목) 10시, 29일(금) 10시
장소 - 전진성당
- ▣ 세례식
일시 - 31일(주일) 14시 30분
장소 - JSA성당
대상 - 황원태
- ▣ 예비신자 모집 안내
대상 -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장병
기간 - 예비신자 신청 이후 4주 과정
“세례는 하느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선물”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6항)입니다.
- ▣ 임명직 군종병 모집
대상 - 모든 세례 받은 이
분야 - 해설, 복사, 반주 등
문의 - 사무장 혹은 학사님들

진례봉사자 인내

날짜 진례시기 해설 특시

8.24(주일) 연중 제21주일 김서준 송종완, 신자섭

8.31(주일) 연중 제22주일 윤준서 김현준, 배수영

9.7(주일) 연중 제23주일 서준혁 최연수, 고지현

9.14(주일) 성십자가 현양 축일 추승민 정호경, 최은지



2025년 8월 24일(제1261호) 연중 제21주일

بلغ : 교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교종 주보

“하느님 앞에서 첫째의 모습”

쓰러져 있던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 비효율적이고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 앞에서 첫째의 모습입니다.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좁은 문을 들어가는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다르고 또 각자의 자리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모든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조국과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정말 느리게 느껴지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첫째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좁은 문을 향해 가고, 그 길 안에서 함께 걷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선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조금은 느리고 비효율적인 모습인 이 길이 하느님 안에서 참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김동환(디미소) 신부
전례해군(전례기자사령부) 성당 주임

말씀

사람들에게 어떤 순서를 정하는 경기를 했을 때, 그 안에는 1등도 있고, 끝찌도 있습니다.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1등을 할만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처럼 끝찌를 하는 사람에게도 그가 왜 끝찌일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끝찌는 아주 느립니다. 다른 사람이 열을 할 때, 끝찌는 하나를 다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끝찌는 비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끝찌의 그런 비효율적인 모습은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효율적이고 빠른 모습이 아니라 느릴 수밖에 없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끝찌밖에 못하는데, 몸이 참 고생할 텐데 말이죠. 끝찌밖에 할 수 없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이 좁은 문을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초주점이 된 사람을 멀리하는 것으로 더 빠르고 더 쉽게 그 길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치료를 해주고 여관까지 대신 내줍니다. 무시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아주 느리게 또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아주 비효율적으로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

제 1 특시 이사 66,18-21

회 팀 송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제 2 특시 히브 12,5-7.11-13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루카 13,22-30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감사헌금 봉헌(이현행 그레고리오)와 교무금 납부(백형규 유스토, 최승재 최형베드로, 박지호 루치오, 이주형 리차드, 박관영)에 감사드립니다.

동정부부 순교자 복지 이순이 투길다 옥중편지

2. 이순이(李順伊) 투갈다가

친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

우리 시누이(유중철의 여자 형제)는 고생을 모르고 지내던 봄인데, 부모·동생 다 잃고 가산까지 빼앗겼으니, 대궐 같은 집을 버리고, 초라한 초가집에서 불쌍한 숙모와 늙고 병든 할머니를 의탁하고, 신행길도 가지 못하였는데 시댁에서는 데려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으니, 그 신세도 딱히 가련하고 불쌍하니,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 분 시동생은 아홉 살(유섬이), 여섯 살(유일석), 세 살(유일문)밖에 안 된 아이들인데, 이들을 각각 거제도, 흑산도, 신지도로 멀리 유배시키니, 그런 꼴을 어찌 차마 볼 수가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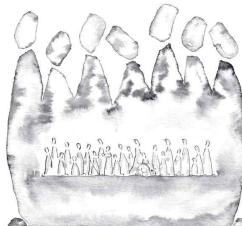
시어르신네 동서분과 서울에 계시던 시사촌과 뜻을 합하여 협력하니, 함께 심문을 당하고 함께 형벌을 받아 함께 갇혔으니, 마침내 함께 죽게 될 듯합니다. <□옴 주에 계속>

『동정부부 순교자 복지 이순이 투길다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지명지신성지

복 음 루 성

- 바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함께한다는 것



불평할 것 없다.
그 역시 불편할 것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여, 참아 내며,
화낼 것도 없다.
그 역시 그러고 싶을 거니까.
안아주며 가는 거다.
나라고 어디 편한 사람인가.
그리 기다리는 것처럼.
넘께서 지금
누구나 같다.



▶ 바영길 신부님의 다른 복성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성회이야기

레비기문의 민친



파울로 베로네제(Paolo Veronese, 1528-1588), 1573년경(경) 재작

캔버스 위 유화, 555 x 1,309cm / 이카데미아 미술관, 이탈리아 베네치아



중: 최후의 만찬 정면

16세기 최대 규모의 캔버스 작품 중 하나인 본 작품은, 베로네제가 성 죄반니와 파올로(성 요한과 성 바오로) 대성당(Basilica di Santi Giovanni e Paolo)에 속한 도미니코회 수도원의 식당 벽을 위해 제작했다. 이 그림은 중앙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은 주변의 혼란스러운 장면으로 일견 구분하기가 힘들 때, 작품 속에는 코피를 흘리는 남자, 여러 명의 노예, 솔 쥐 한 독일 군인들, 앵무새를 어깨에 올리고 있는 왕대, 이빨에 긴 음식을 포크로 꺼내는 남성 및 각양 각색의 인물들이 다양한 자세와 모습으로 화려한 로마식 건축물 안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다.

이 건축물들은 삼면 제단화(triptych)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기둥과 아치로 구획이 나누어져 있어, 그 나마 우리가 다양한 인물들의 상태를 찬찬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아치들은 우리에게 개선문을 떠올리게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긴 승리를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된다.



포크로 이빨을 쑤시는 남성과 풍자

이렇게 다양한 인물 묘사는 오늘 복음 말씀 중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연상시키기도 하나, 다소 신랄하고 현실적인 연회 장면 묘사로 인해 화가는 신성 모독죄로 종교재판을 받았으며, 그래서 제목을 <최후의 만찬>에서 종교성이 옅은 현재의 제목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김은혜(엘리시벳)

술 취한 독일 군인

교 구 소 식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8월 26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요셉의원 서울역 이전 개원미사
때: 8월 29일(금) 14:00

- 이성운 신부 은퇴 감사미사

- 때·곳: 8월 30일(토) 10:00, 창동 성당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간증성서의 해” - “성령께서 나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 나한테는 힘을 불어 넣어 주는 중인이 될 것입니다.” (서도 1.8)